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새시대를 펼쳐시여

새로운 주제100년대가 시작되어 지난 10년,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에 비해물 때 순간과도 같은 이 나날 경여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만

데에 영연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그가운데는 공화국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새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바쳐오신 가슴뜨거운 헌신과 로고도 있다.

문명강국건설의 앞길을 밝혀주시여

사람들은 누구나 고도의 문명한 환경에서 살며 일할 것을 바라며 그 지향과 요구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더욱 높아진다.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면 제나름의 문명을 자랑하면서 문명의 표본국이라고 자처하는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들에서는 인민이 문명의 진정한 향유자,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이 향유하는 문명강국건설의 진로와 목표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지금도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주제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통일거리운동센터를 찾아주시었다. 그때 건강체력단련에 리용되는 어느 한 기계를 살펴 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문명한 생활은 자기들만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문명한 생활은 정신적 및 물질적부의 창조자 인민들부터 향유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이곳에서 문명한 생활을 향유하면서 세계적주세도 알고 그것을 압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는데서도 세계를 더디고 갈라서야 한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언단에서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라고 천명하시었다.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문명강국건설의 목표와 방도들을 환히 제시하신 경제하는 원수님의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 나가시여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고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민헌신의 낮과 밤을 바쳐 오시었다. 그 나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안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온 나라 방방곡곡을 찾고찾으시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우에 꽃피던 이야기들은 그 얼마나 많은가.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인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전하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경여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은 산발들과 험한 령길을 헤치시며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찾아주시는 때는 한해에도 제일 무더운 삼복기간인 주제107(2018)년 8월중순이었다. 폭염과 열풍도 아랑곳하지 않고 먼길을 달려오신 피로도 풀실 사이없이 군안의 온천지구에 꾸러져있는 료양소들의 운영실태와 온천리용정형을 료해하신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의 곳곳에는 주변경치가 뛰어나고 사람들의 건강과 병치료를 효과에 대단히 좋은 온천 자원들이 적지 않지만 휴양 및 료양시설달게 위생문화적 및 온천하게 꾸러진 종합적인 봉사기지가 없다고 하시면서 며칠동안 여러모로 따

저본 결과 그중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된 양덕군의 온천지구를 현지고찰하고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온천골들을 돌아보시며 온천의 용출량과 물온도를 비롯한 중요특성에 대하여 직접 료해하시던 그이께서 어느 한 용출수로 가실 때 예견치 않았던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져내렸다. 하지만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쉬임없이 온천물이 뿜어져나오는 용출수를 보시면서 귀한 보석이라도 찾으신 듯 환하게 웃으시며 뜨거운 온천물에도 주저없이 손을 담그어보시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과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이렇듯 삼복의 무더위도, 비내리는 험한 날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원수님께서는 무려 2 000여 건에 달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을 지도하여

주시며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세상에 으뜸가는 문명의 별천지로 꾸러주시었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해에만도 폭염강행군, 철야강행군으로 삼지연시의 건설장들과 총중농장, 감자가루생산공장, 락산바다리어양어사업소, 염분진호맹건설장, 청진가방공장,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천메기공장, 평양무래도전차공장, 금산포것갈기공장 등 나라의 방방곡곡에 위민헌신의 불멸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경제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창조된, 미미과학자거리, 온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 룡라인민유원지, 룡경원, 인민야외빙상장,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자연박물관,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대동강수산물시당, 룡경치과병원, 유유아동병원, 온정차음료공장, 미래상점, 룡경치과공장 등 사회주의문명이 어떤것인가를 응

면적으로 말하여주는 회한한 창조물들이 이 땅의 도처에 일떠섰다. 또한 삼지연시가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로 천지개벽되고 검덕지구에 사회주의선진 산악협곡도시가 일떠서고있으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약동하는 발전상과 저력을 크게 과시하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되었다. 참으로 세상에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용대한 리상과 포부, 비상한 실천력으로 사회주의문명의 개화기를 열어 나가시는 경제하는 원수님께서는 계시여 공화국은 머지않아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우뚝 솟아올라갈 것이며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향유하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가 창공에 높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추억도 승리, 미래도 승리

지나온 해는 추억으로 돌아보고 맞이한 새해는 희망으로 바라보는것이 한해가 바뀌어 시점에선 인간들의 심리이다. 이 시각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가득 차고넘치는것은 걸어온 길에 대한 승리의 추억이고 걸어갈 길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다. 얼마전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2021년을 조국번영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긍지높이 총화하시면서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만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역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와 같이 업축한 환경속

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었다. 승리로 걸어온 길, 승리가 기다리는 길! 공화국의 승리는 경제하는 원수님의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낮과 밤과 맞바꾼 고귀한것이고 그이의 령도를 받들어 온 나라 인민이 만만시련도 이겨내며 안아오고 또 이룩해가는 영구불변한것이다. 지난해의 승리의 령정을 돌이켜 보며 누구나 가슴들먹인다. 겹쳐드는 재난과 재해속에서 온 행성이 뭉뚱질 때 오직 공화국에서는 시기시기, 단계단계마다

인민을 지키고 나라를 사수하는 가장 곧바른 승리의 리징표들이 명시되었고 승리의 활주로가 펼쳐졌다. 국가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벅찬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진로들을 밝힌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비롯한 중요회의들, 첫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받아안고 끝없는 행복에 웃을것은 아이들과 이 땅우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사회주의선진들과 인민의 보급자리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트라에서의 뜻깊은 경축연회...

이 소중한 추억들을 합쳐놓으면 뜻깊은 승리의 해인 2021년이 되고 승리의 길을 따라 과감히 직군해온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의 모습이다. 벌써 5개년계획수행의 확고한 담보를 구축하고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여 조국청사에 영광스러운 한페지를 아로새길 장엄한 올해의 가슴벅찬 령정이 환히 보인다. 공화국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의 다

음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향도적 투쟁방침을 제시하시는 경제하는 원수님을 뜨거운 격정속에 우리들며 그리고 새해의 첫아침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은 공로자들과 로력혁신자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위대한 승리의 레일을 확신성있게 보고 있다. 행성의 곳곳에서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제나름의 아픈 추억과 한치라도 내다볼수 없는 비관에 잠겨 신년의 기쁨마저도 느끼지 못하고있지만 공화국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승리를 경축하고 승리를 꿈꾸며 힘찬 직군보폭을 내짚고 있다. 하기에 얼마전 어느 한 나라의 인터넷에는 이런 글이 올랐다. 《조선에서 열린 이번 전원회의는 김정은원수님의 밝은 미소속에 마감되었다. 어둡침침한 이 행성을 밝히고도 남음이 있을 그 찬연한 미소는 승리의 자만이 지을수 있는 고유작작한 미소이며 가장 곧바른 승리의 진로를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은것이다. 이런 령도자를 모신 조선의 앞길에 승리만이 있는것은 너무도 필연적인것이 아닐까.》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세계

개변을 이룩하기 위한 새해의 장엄한 투쟁에서도 핵심적, 선구자적 역할을 계속 훌륭히 수행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그날 전체 참가자들은 지난해 한해 불면불휴의 집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건설사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고도 그 성과

를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려주시고 응당 하여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크나큰 영예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제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열렬한 호모의 정으로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경제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세계에 눈금을 적시었다. 모두가 가슴뿌듯이 돌이켜보는 지난해의 기적적인 성과들은 경제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위민헌신의 령정에 의하여 마련된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 첫아침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 억척불변의 의지가 맥박치는 진철서한을 전체 인민에게 보내신 그이께서는 온 한해의 날과 밤을 열화같은 위민헌신으로 맞고 보내시었다. 중요당회의들을 려이어 소집하시고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략들을 제시하시였으며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보통강강안다락식주래구건설장착공식을 비롯한 나라의 전역을 종횡무진하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5개년계획수행으로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킨 경제하는 원수님이시이다. 인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향상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문제, 국토관리정책을 철저히 집행할때 내한 문제,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날로 악화되는데 맞게 방역대책을 더욱 빈틈없이 세출때 대한 문제, 한해 농사결속을 잘하도록 할때 대한 문제 등 국가와 인민이 중시하고 해결하여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

게 이끄신 경제하는 그이의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재해성이상후가 휩쓰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부문에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고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 검덕지구 살림집건설 등이 힘차게 추진되었다. 또한 량강도의 삼지연시 꾸러기 3단계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전력, 금속, 석탄,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진일보의 개선과 혁신이 이룩되었다. 지난해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제적립,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리징표와 전진과 혁신의 실천적무기를 안겨주시고 그 실현으로 전진, 전진, 전진을 이끄신 경제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하는 그이께서는 지난해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전체 인민이 충성적인 열의를 안고 산악같이 높고일어나 모든 곤난을 인내하며 5개년계획수행의 첫해 과업수행에 애국의 뜻을 바쳐주었기때문이라고 하시며 또든 영예와 영광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었으니 경제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이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성인 이시고 절세위인이시이다. 하기에 경제하는 원수님의 새해 첫 혁명활동소식에 접한 전체 인민은 그이의 위민헌신의 세계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실천강령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당겨오기 위한 과감한 직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본사기자 리 경월